

[생활과 윤리 개념+심화 내용정리본]

규범 윤리학:

- 1) 우리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제시하는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 즉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시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음.

이론 윤리학:

- 1)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규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함.
 - 이론 윤리학 중에서도 의무론적 윤리에서 두드러짐.
- 2)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메타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윤리 이론을 정립하는 작업을 할 때 메타 윤리학에서 중시하는 언어의 의미와 분석,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에 대한 분석 등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3)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도덕 이론의 규범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도덕적 판단을 위한 보편적 근거(원리)를 마련하고자 함.
- 4) 도덕 언어의 의미나 도덕 추론의 타당성 분석에 관심을 갖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윤리학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음.
- 5) 윤리학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실천 윤리학:

- 1)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함.
- 2) 도덕 언어의 의미나 도덕 추론의 타당성 분석에 관심을 갖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윤리학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음.
- 3) 도덕 문제 탐구에 사회, 자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함.
- 4)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함.
 - 객관성은 주관성에 대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덕 현상을 학문적으로 타당하게 연구를 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식, 즉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방식으로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해. 즉 규범 윤리학자들 역시 도덕 현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식으로 탐구하고자 한다는 것.
- 5) 경험적 사실을 기술하기도 하지만 도덕적 가치 판단을 중시함.
- 6)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나 도덕 규칙 외에도 현실의 문제 상황과 관련된 사실적 지식을 알아야 함.

메타 윤리학:

- 1) 메타 윤리학의 한 영역 중 '정의주의'는 도덕적 용어와 진술들이 단지 말화(말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함.
- 2) 메타 윤리학의 한 영역 중 '과학주의'는 과학적 방법만이 진위의 증명을 통해 타당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가치와 진술들을 과학의 영역에서 배제하려 함.
- 3) 윤리학이 하나의 객관적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함.
- 4) 도덕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 5) '옳다', '유덕하다' 같은 도덕적 술어의 의미를 검증하고자 함.
- 6) 사실 명제로부터 상위 명제가 연역 가능한지를 탐구함.
 - 도덕 추론의 논증 가능성
- 7)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음.
- 8) 윤리학은 도덕적 명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해야 함.
- 9)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도덕적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과 도덕적 명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임.

기술 윤리학:

- 1) 한 사회의 도덕규범을 문화 현상으로 파악함.
 - 도덕 현상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아야 함.

- 2) 도덕적 관습(관행, 풍습)을 경험적으로 조사해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인과 관계를 고려하면서 서술(기술, 설명)하고자 함.
 - 도덕적 관행을 문화적 사실로 이해하는 특성이 있음.
- 3)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4) 도덕을 하나의 현상적 사실로 보고, 윤리학은 그것을 과학적(사회 과학적)으로 접근해 인과관계를 고려하면서 서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5) 윤리학은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각 문화권의 다양한 도덕적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6) 기술된 도덕 현상들의 상호 인과관계의 논리적 규명을 중시함.
- 7) 도덕적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함.
 - 실증적: 경험적 사실의 관찰과 실험에 따라 증명하려는 성향.
- 8) 도덕 추론을 위해 사실적 지식으로서 도덕적 관행이나 관습을 중시함.
- 9) 도덕규범이 형성된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중시함.
 - 이를 위해 도덕을 사회 현상(사회적 사실)로 보고 객관적이며 경험적으로 탐구할 것을 강조함.
- 10) 도덕적 사실(현상) 및 도덕적 관행을 구체적으로 기술(설명)하며, 기술된 진술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함.
- 11) 보편적 윤리 규범의 존재를 부정하여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12) 윤리학은 한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기초해 형성된 문화적 사실들을 도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 사회 집단이 갖고 있는 도덕적 관행에 기초해 형성된 문화적 사실들을 도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경험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기술하려 함.
- 13) 도덕적 관행을 가치와 무관한 문화적 사실로 볼 것을 강조함.
- 14)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들을 과학적으로 서술해야 함을 강조함.
- 15)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강조함.
- 16) 윤리학이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봄.
- 17) 도덕적 신념과 관습을 사실들의 집합으로 간주해야 함.
- 18) 도덕적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함.
- 19)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개인의 생활,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해 온 도덕적 관행들을 역사적,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서술해야 한다.
- 20) 도덕 현상을 기술할 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
- 21)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함.
 - 객관성은 주관성에 대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도덕 현상을 학문적으로 타당하게 연구를 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식, 즉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방식으로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해. 즉 규범 윤리학자들 역시 도덕 현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식으로 탐구하고자 한다는 것.
- 22) 윤리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지 않음.

도덕 과학적 접근:

- 1)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적 검증임.
- 2) 신경 윤리학: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이성과 감정(정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말하는 자유 의지나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를 과학적 측정 방법을 통해 입증(측정)하려고 뇌의 전연을 활용한 영상을 활용함.
- 3) 진화 윤리학: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말하는 것들, 예를 들어 인간의 이타적 행위나 성품 등을 생물학적 진화에 의한 자연 선택의 결과라고 주장함. 즉 인간의 이타적 행위를 다름 아닌 자신의 생존과 번식,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 4) 신경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임.
- 5) 신경 윤리학에서는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이성과 정서의 역할을 과학적

- 측정 방법을 통해 입증함.
- 6) 신경 윤리학에서는 도덕 판단 과정에서 자유 의지나 공감 능력의 여부를 과학적 측정 방법을 통해 입증함.
 - 7) 신경 윤리학에서는 뇌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의 윤리적 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봄.
 - 8) 신경 윤리학에서는 신경 세포의 활동으로 윤리적 의식과 도덕성을 해명하고자 함.
 - 9) 신경 윤리학에서는 신경의 물리적 변화 형식과 그 유형이 인간의 윤리적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
 - 10) 신경 윤리학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대한 이성 중심의 전통적인 견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11) 진화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도덕성의 검증임.
 - 12) 진화 윤리학에서는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추상적인 도덕 원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라고 봄.
 - 13) 진화 윤리학에서는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임.
 - 14) 신경 윤리학에서는 자유 의지의 존재 여부를 과학적 측정 방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봄.
 - 자유 의지의 존재를 부정해야만 도덕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님.
 - 진화 윤리학에서도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음.
 - 15) 신경 윤리학에서는 정신과 신체가 독립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뇌를 비롯한 신체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성립한다고 봄.

유교:

- 1) 남녀가 유별한 뒤라야 부자가 친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야 도의가 성립되며, 도의에 의해 예의가 제정되고, 그런 다음에야 만사가 안정된다. 만일 남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도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수의 도이다.
- 2) 부부의 도리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함.
- 3) 죽음을 통해서만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됨.
- 4) 삶과 죽음은 자연의 이치임.
- 5) 가장 큰 섬김에는 물질적 봉양, 정신적 공경,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입신양명 등이 있다.
- 6) 군주에 대한 신하의 도리: 사군이충
 - 사군이충: 몸과 마음으로 임금에게 충성/헌신하는 것.
- 7) 부모님의 뜻과 의중을 헤아리는 양지가 중요함.
- 8) 죽음이 아쉽게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만 함.
- 9) 유교에서의 도는 도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서 도덕적 인격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10) 뜻이 있는 선비는 곧 인, 즉 인간으로서 도덕적 삶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람을 말함. 이런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만 인, 즉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결단하는 참된 용기와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라 할 수 있음.
- 11) 내세에 대해 강조하지 않음.
- 12) 죽음과 관련해 진심이 담긴 슬퍼하는 마음이 우선이고, 형식을 갖추는 일은 그 다음이라고 주장함.
 - 선 애도 후 상례
- 13) 효는 인의 실천이자 모든 행실의 근본임.
 - 효는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됨.
- 14) 동기간의 사랑이 자녀의 근본 도리임.
- 15) 자신의 수양을 경으로써 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
 - 수기안인.
- 16)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해 거경해야 함.
- 17)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신독해야 함.

- 18) 부부의 도리는 모든 예의 근본이 됨.
- 19) 태어남과 죽음은 본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임.
- 20) 선비는 살아남기 위해 인, 즉 도덕적 옳음을 해치지 않음.
- 21)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 도리임.
- 22) 대도가 행해진 세상에서는 여진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며,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재물이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자기만의 소유물로 삼으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아 바깥문을 닫는 일이 없다.
- 23)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함.
- 24)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고, 재물은 형평성에 맞게 고르게 분배되어야 함.
 - 25)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를 행해야 함.
 - 서는 인을 실천하는 일과 관련됨.
 - 26) 이상적 인간은 하늘의 명을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삼음.
 - 27) 이상적 인간은 수양을 통해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해야 함.
 - 도모하다: 인위적으로 ~ 을 하다.
 - 28)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인 성인이나 군자가 될 수 있음.
 - 29)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을 확충하기 위한 수양으로 경과 성을 강조함.
 - 경: 홀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음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신독)
 - 성: 진실한 자세로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 30) 수양의 목적은 남을 다스리는 것에 있음.
 - 31) 하늘을 인격천으로 보며, 도덕규범의 근원으로 봄.
 - 32) 하늘이 부여한 순전한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
 - 33) 삶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
 - 군자는 길을 따라가다가 그 길 안에서 죽을 것이니 나는 살아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 34) 죽은 자를 위해 슬픔을 다하여 신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먼 조상의 제사에도 예로써 추모한다면 백성들의 덕이 두터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 35)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고 부유해지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군자는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남을 탓하지 않으며 명에 따라 살아갈 따름이다.
 - 36) 천명은 거역할 수 없으므로 생사에 얽매이면 안 됨.
 - 37)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함.
 - 38)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인을 실천해야 함.
 - 39)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함.
 - 40) 인간과 자연 존재 간의 도덕적 고려에서 분별적 차이를 둬.
 - 41)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도리에 맞다.
 - 42) 군자는 동식물을 사랑하지만, 인애하지는 않는다.
 - 43) 군자는 만물의 화육을 도모함.
 - 44) 군자가 금수에 대하여 대처하는 모습은, 그 살아 있는 것을 보고는 차마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죽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군자는 푸줏간을 멀리한다.
 - 45) 군자는 만물(금수초목)을 아끼지만 인애하지는 않고, 백성들을 인애하지만 친애하지는 않는다. 부모를 친애하고 백성들을 인애하며, 백성들을 인애하고 만물(금수초목)을 사랑한다.
 - 46) 사람을 먹여 주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돼지처럼 접대하는 것이고, 사랑하지만 공경하지 않는다면 짐승으로 여기며 기르는 것이다.
 - 47) 하늘은 나의 아버지이며, 땅은 나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작은 존재도 이들 가운데서 친밀한 위치를 발견한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나의 몸으로 여기며, 우주를 이끌고 가는 것을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이고, 나의 식구이다.
 - 48) 유교는 인간과 자연적 존재들 간의 위계를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지 않음.
 - 49) 자연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존재임.
 - 50) 가정에서 효를 실천하고 이를 밖에서 확충하여 국가 차원의 충으로

나아가야 함.

- 51) 하늘이 듣고 보는 것은 백성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므로 군주의 통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함.
- 52) 국가가 백성을 바르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줄 때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때 국가의 권위가 정당화됨.
- 53) 군주가 덕을 갖추고 백성을 다스린다면, 국가에 대한 충의 자세를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함.
- 54)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의무임.
- 55) 부부유별: 구별과 차이는 인정하고, 음양론에 따라 조화를 추구하지만, 차별하지는 않음.
- 56) 부자유친: 유교의 정치는 율리보다 친애를 중시함.
- 57) 형제자매 관계는 동기간(세대와 항렬이 같음)이고 수평적이며 수직적인 관계임.
 - 형우제공, 수족지, 할반지동
- 58) 아내와 남편을 서로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화합해야 함.
- 59) 세상 만물은 음양의 대립, 통일, 순환의 과정을 통해 균형을 이루게 됨.
 - 음양은 구별되지만 차등 관계가 아님.
 - 음양론: 우주나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음양의 변화로 설명한다는 이론임. 음과 양은 서로 다르지만,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봄.
- 60)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인륜상 각각 직분이 있어 서로 침범하지 못할 구별이 있음.
- 61)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
 - 불감훼상, 봉양, 양지, 공대, 불욕, 혼정신성, 입신양명
- 62) 부부의 도리는 모든 예의 근본이 됨.
- 63) 예로 교화해야 함.
 - 예와 약으로 본성을 교화하는 것은 순자의 입장임.
- 64) 거경: 항상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몸가짐을 조심하여 덕성을 닦음.
- 65) 신독: 홀로 있을 때에도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감.
- 66) 성인이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 것은 유교 사상만의 입장임.
- 67) 충: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는 것.
- 68) 서: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 69) 학습의 목적이 인격을 도야하며 배운 바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봄.
- 70)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함.
- 71)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평등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음.
- 72) 사람이 죽음에 임해서는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되는 법임.
- 73)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함.
- 74)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아 인의의 삶에 힘써야 함.
- 75)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함.
- 76)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할 때도 중용을 지켜야 함.
 - 중용의 덕: 지나침이나 미치지 못함이 없는 덕.
 - 애도에 있어서 중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과하게 슬퍼하지도, 아예 슬퍼하지 않는 것도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애도에 있어서 예와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애도를 표시하는 형식과 그 사람의 속마음이 모두 도덕적으로 적절해야 함을 의미함.
- 77)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의 실천이 죽음과 귀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주제라고 가르침.
- 78)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며,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됨.
- 79) 부부유별: 오륜의 하나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을 표현함.
- 80) 형우제공: 형과 동생은 사랑하고 공경하는 관계임.
- 81) 친구를 가깝게 오래 사귄 벗으로 우정을 중시하는 선택적 관계로 봄.
- 82) 부부를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관계로 봄.
- 83) 효는 인을 실천하는 출발점으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됨.

- 84) 부부의 도리는 모든 예의 근본이 됨.
- 85) 확복한 부부 생활은 효도의 한 방법임.
- 86) 부부의 의의는 세대를 계승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음.
- 87) 유교 사상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는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님.
- 88) 부부는 상호 간 항렬을 따지는 관계가 아님.
- 89) 부부는 형제와 달리 서로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하는 동반자임.
- 90) 형제는 장유의 서열과 친애를 근본으로 하는 상호 존중의 관계임.
- 91) 자애는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도타운 사랑으로,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임.
- 92) 부부 관계는 인륜의 시작임.
 - 인륜: 인간이 정하는 관계로서 부부, 친구, 사제 관계.
 - 천륜: 하늘이 정하는 관계로서 부모자식, 형제자매 관계.
- 93) 부부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보지 않음.
 - 부부 관계는 남녀 간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음과 양의 관계처럼 상호 보완적이고 대등한 관계임.
- 94) 부부는 인륜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심해야 함.
- 95) 효는 보은의 마음을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임.
- 96) 부모를 향한 효를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다 하고,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 식으로 이해 관계에 따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음.
 - 효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천륜의 관계에서 봉양과 양지를 실천하는 것이어야 함.
- 97) 자연의 생명력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며, 인간이 이것을 본받을 것을 주장함.
- 98)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을 강조하면서도 인간과 자연 존재들 사이에는 도덕적 측면에서 분별이 있다고 봄.
- 99) 예악은 정서의 순화와 언행의 교화 모두에 기여함.

불교:

- 1) 연기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파악함.
- 2) 오온의 새로운 구성이 태어남이고 그 해체가 죽음이다.
 - 오온: 물질적 정신적 요소로 파악되는 것
- 3) 죽음을 윤회, 즉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윤회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이라고 주장함.
- 4)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과 정진의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해탈을 해야 함.
- 5) 요즘 중생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망상에 빠져 자기 본성이 참된 진리의 자체임을 모르고, 마음 밖에서 그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헤맨다. 만약 한 생각이 나온 곳으로 빛을 돌려 자기 본성을 비취 보면, 이 본성은 원래 번뇌가 없는 완전한 지혜로,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 6) 내 마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선해야 함.
- 7) 세상 사람들의 생사는 중대한 일인데, 그대들은 하루 종일 공양하면서 다음 생의 복만을 구하려 하고, 생사의 굴레를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들은 자신의 본성에 대해 여전히 미혹하다.
 - 생사의 굴레, 즉 윤회의 사슬을 끊고 벗어나 자신의 본래 성이 연기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해탈해야 함.
 - 공양: 부처에게 음식을 올림으로써 모시는 일
- 8) 존재하는 현상과 사물은 모두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닌 무상한 것임.
- 9) 존재하는 것(현상)들은 실체로서 존재할 수 없는 무상임.
- 10) 자아의식일지라도 또한 실체가 없는 것임.
- 11) 사물에는 생명의 정황이 있으나, 이는 마음이 드러난 것일 뿐 생겨남이 없는 깨달음에 소멸할 것도 없다. 이를 알면 생사와 열반이 평등하다는 경계에 이를 것이다.
- 12) 연기적 관점에서 삶과 죽음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로 여겨야 함.
 - 생사일여
- 13) 연기를 깨닫고 계정례를 닦아 생로병사와 같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함.
- 14)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인간의 무명과 같음

- 때문이라고 봄.
- 15) 불변하는 자아, 즉 실체를 주장하지 않음.
 - 16)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음.
 - 17) 불성은 타고난 본성으로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평등함.
 - 18) 중도: 쾌락과 고행의 양 극단을 떠난 상태.
 - 19) 자타불이를 깨닫고 사랑을 모든 만물에 베풀으로써 자비로 나아갈 수 있음.
 - 20)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짐.
 - 21) 연기를 깨닫고 자기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의 마음이 생기면 고통의 원인인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음.
 - 22) 보살: 대승 불교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으로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
 - 보살 수행 방법: 육바라밀의 실천
 - 육바라밀: 여섯 가지 수행 덕목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반야)를 말함.
 - 23) 삼학: 계, 정, 혜
 - 계: 몸과 입,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
 - 정: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
 - 혜: 분별심을 없애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 24) 해탈: 번뇌의 열매인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경지.
 - 25) 무명: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무상이며 무아임을 모르는 상태.
 - 26) 애욕: 사물을 탐하고 애착하며 욕구하는 마음.
 - 27) 삼독: 탐욕, 분노, 어리석음(탐, 진, 치)를 뜻함.
 - 28) 열반: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모든 번뇌의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평온한 상태.
 - 29) 참선: 자신의 맑은 본성을 찾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하는 수행법.
 - 30) 사성제: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진리.
 - 고성제: 현실세계의 결과: 현실은 괴로움으로 충만해 있음.
 - 집성제: 현실세계의 원인: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무명과 이로 인한 애욕 때문에 집착이 생겨나고 그 결과 고통을 겪게 됨. 연기성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 자기 자신과 현실 세계가 존속한다는 것에 집착함으로써 삼독에 빠져 고통을 받게 됨.
 - 멸성제: 이상세계의 결과: 집착을 없애면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됨.
 - 도성제: 이상세계의 원인: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함.
 - 31)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 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이다.
 - 32)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그리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난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집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갈애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가 그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멸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애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버림, 놓아 버림, 벗어남, 집착이 없음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도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팔정도)인,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업,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이다.
 - 사성제는 괴로움과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과

-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을 말함.
-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 올바른 길, 즉 팔정도를 닦아야 함.
 - 33) 부처의 마음이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거인 불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봄.
 - 34) 참된 진리를 깨닫기 위한 수양으로서의 참선을 중시함.
 - 35)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 36) 색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곧 내가 아니며, 내가 아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한다. 이렇게 관찰하면 색을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면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게 되고, 해탈하면 진실한 지혜가 생긴다.
 - 37) 오온의 본모습을 인식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함.
 - 인간이란 오온의 일시적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존재로 보며, 실체가 아닌 요소로 이루어진 인간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무아를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봄.
 - 38) 육체가 나는 아니지만 나는 육체를 떠날 수 없다. 감수, 표상, 의지, 인식이 나는 아니지만 나는 이것들을 떠날 수 없다. 이 다섯 가지를 바르게 통찰해야 나에 대한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 39)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통스러우며, 무아임을 깨달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봄.
 - 40) 인과 연도 무상이라고 봄.
 - 41)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교와 차이를 보임.
 - 42) 삼법인(사법인):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 열반적정
 - 제행무상: 세상의 모든 것은 끈임없이 변화함.
 - 제법무아: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
 - 일체개고: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고 집착하여 고통에 빠짐.
 - 열반적정: 깨달음을 통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함.
 - 43) 자비는 조건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생명체에게 행함.
 - 44) 불교에서는 존비/친소/시비의 분별은 없지만 선악의 구분은 있음.
 - 45) 더 나은 삶을 위한 수양을 인정함.
 - 46)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달음으로써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
 - 47) 중생의 무리로부터 떨어짐, 오온의 부서짐, 생명의 끊어짐을 죽음이라 한다. 태어남이 있을 때에만 죽음이 있다. 삶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대, 마땅히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 무상
 - 48) 바른 지혜를 얻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안다.
 - 49) 도를 닦으면 태어남과 죽음을 끊고 열반에 든다.
 - 50) 우주와 인간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곧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임.
 - 51) 온갖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그들을 잡아서 먹거나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거나 해치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다.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온기와 존재는 다 나의 본래 몸이다.
 - 52) 살아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줘서도 안 된다.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살아 있는 이 모든 것들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
 - 53) 참선: 좌선을 통해 선을 묻고 배우고, 자신의 맑은 본성을 찾으려는 수행법.
 - 54)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이 불성을 지니므로 평등함.
 - 55) 불성: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의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거.
 - 56) 삼학: 계/정/혜
 - 계: 몸과 입,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
 - 정: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
 - 혜: 분별심을 없애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 57) 바른 견해를 가진 자는 바른 견해를 가진 자와 함께 모이고, 바른 사유를 가진 자들은 ... 바른 말을 가진 자들은 ... 바른 생계를 가진 자